

1948년 사망 박진경 '6·25 참전 유공' 논란

국가기록원 훈기부 기재 6·25 공적-사망 시점 오류
4·3 연구자 "전쟁 전 사망자가 참전유공 말이 안돼"
보훈부 "훈장이 거짓이면 유공자 지위도 자동 소멸"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이 6·25전쟁 발발 2년 전(1948년) 사망했지만 6·25참전유공자로 인정돼 훈장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기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박 대령은 6·25 참전 전몰군경으로 인정돼 무공훈장을 받은 셈이다.

또 최근 논란을 빚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을지무공훈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훈장의 적정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한라일보가 확보한 국가기록원의 '을지무공훈장 훈기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훈기번호 'J 00035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육군본부1사11연 소속으로 1950년 12월 30일 '육이오참전유공'으로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이 자료에는 대간첩작전(D), 외국인(F), 6·25참전(J), 월남전참전(W) 등의 공적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들의 훈기번호가 각각 알파벳으로 구분됐다. 또 훈장 수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 소속, 직급, 훈종·훈격, 수여일자, 공적 요지가 기재돼 있다.

훈기번호 속 숫자 '356'은 박 대령의 을지무공훈장 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증서에는 "멸공전선에서 제반애로를 극복하고 현신분투하여 발군의 무공을 수립하였음으로 (중략)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함", "제3五六(356)호로서 무공훈장부에 기입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 훈기부에 기재된 소속 '육군본부1사11연'은 박 대령의 마지막 소속과 직급인 '조선국방경비대(현 육군) 제11연대장'과 일치한다. 이같은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훈기번호 'J000356'은 박 대령임을 추정할 수 있다.

도내 4·3연구자 A씨는 "6·25전쟁 발발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

이 6·25참전유공으로 훈장을 받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훈기부 속 공적 요지가 박 대령의 을지무공훈장이 거짓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 대령의 무공훈장 수여 사실을 언급하며 "1948년에 사망했는데 6·25 참전유공자로 훈장을 받았다는 게 팩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정확한 내용은 남아있지 않지만 6·25



박진경 대령이 받은 을지무공훈장. 독자 제공

는 아니고 국가 안전보장과 전몰장병에 대한 훈장으로 남아있다"며 "6·25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상훈법 제8조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 중인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된 훈장이 거짓임이 밝혀져 취소될 경우 유공자 지위도 자동으로 소멸된다"며 "다만 상훈법이 아닌 국가유공자법 4~6조에 따라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오보 보훈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 매체의 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직계 아들딸과 부모 등만 신청이 가능한데 박 대령의 경우 손자가 신청한 점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강주위 찾아온 날 오일장 강주위가 내습한 22일 제주시민속오일장 내 어묵·옥수수 쪽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강희만기자

소방, 신구간 가스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최근 5년간 가스 화재 21건
17명 사상·2억 대 피해 발생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 가스 안전사고(화재)는 총 21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17명(사망 1, 부상 16), 재산피해는 2억 4446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은 LP가스 사용 비중이 높아 전체 사고의 57%(12건)가 LP

가스에 의해 발생했다. 부탄연소기로 의한 사고(28.6%)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사고의 52.4%(11건)가 주택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비 등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방본부는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이사철 가스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양유리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23일 금요일 음 12월 5일 (12월)

기상정보



흐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C, 낮 최고기온은 9~10°C로 예상된다. 곳에 따라 눈이 오겠으니 빙판길에 주의해야겠다. 강추위와 강풍, 풍랑에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주	60%	
60%	성산	60%	
60%	고산	60%	
60%	서귀포	60%	

해뜨 07:36 해짐 10:02
달뜨 22:23
달짐 22:23

물때 만조 01:00 간조 07:34
13:35 20:16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많음 3/10°C
모레 구름많음 2/11°C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효선오일장	2, 7
대성오일장	1, 6

기준 미달 저급 만감류 유통 특별단속

도, 다음 달 28일까지 도매시장·선과장 합동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부 주요 도매시장과 도내 선과장·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저급 만감류 시장 유통에 대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국산 만다린의 전면 무관세 수입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품질 만감류로 인한 소비자 신뢰 저하와 도매시장 가격 하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만감류연합회와 함께 도내 선과장 및 전통시장, 도외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이행, 상품의감귤 유통 행위 등 유통 만감류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결과 상품 기준에 미달한 만감류를 출하한 생산자와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향후 행·재정적 지원 제한과 영업정지 등 조

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기준 준수를 통해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합당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민·관 합동단속으로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제주 만감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독자제보 750-2232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배려 깊은 동행으로 하나되는 제서인!



제주서초등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초대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지난해 열정적으로 봉사하며 총동창회를 이끈 이창희 이임회장과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홍태옥 취임회장의 제주서초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이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40대 취임회장
홍태옥(26회)

행사일 2026년 1월 31일(토) 17:30
장소 모교 체육관

심의안건

- 제1호의 안 : 202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제2호의 안 : 제40대 홍태옥 총동창회장 인준의 건
- 제3호의 안 : 2026년 총동창회 감사 선출의 건
- 제4호의 안 :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연락처

- 총무부회장 : 한종선(010-8662-6656)
- 재무부회장 : 정수정(010-2657-8282)
- 총동창회관 사무국 : (064)725-1931
- * 축하 화환은 쌀화환으로 보내주시면,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서초등학교동창회관 주소:(63154) 제주시 용담로 141(302호) 다율해피존 / 연락처:(064)725-1931 / FAX:(064)725-1932

제1회 현석훈 제2회 고대용 제3회 박문수 제4회 김재열
제6회 한석홍 제7회 양광수 제8회 장신숙 제9회 박순형
제11회 고우형 제12회 김완국 제13회 김인환 제14회 고희자
제16회 채승혁 제17회 김황룡 제18회 강권복 제19회 송봉철
제21회 허미경 제22회 김창남 제23회 강종구 제24회 문상복
제26회 김연희 제27회 고기원 제28회 고민석 제29회 문상복
제31회 김선범 제32회 신화진 제34회 백성대 제30회 김대원

제45회 조민영(23회) 오름연합회장 강순구(16회) 바둑동우회장 김근택(14회)
골프동우회장 김원국(12회) 낚시동호회장 박홍주(17회)